

## 포스트휴먼 담론과 고전서사의 인물론 연구

- 서사 주체로서 '원귀'를 중심으로\*

오세정\*\*

〈차  
례〉

1. 새로운 담론의 출현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2. 포스트휴먼의 관점과 고전서사 인물론의 방향
3. 원귀 서사의 구조와 서사 주체로서의 인물 분석
  - 1) 원귀 서사의 구조
  - 2) 행위와 정념의 주체로서 원귀
4. 비인간적 존재 원귀를 통한 인간의 이해

### 〈국문초록〉

포스트휴먼 담론의 등장으로 인문학을 비롯한 학문 전 영역에서 종래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다시 보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새로운 담론은 현상에 대한 지시나 해석뿐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이나 인간관에 대한 변화를 함축하고 견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담론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 방법에 대한 모색은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이다. 본 논의에서는 고전서사에 자주 등장하는 비인간적 존재이면서 인간 존재의 가치와 성격을 잘 드러내는 '원귀(冤鬼)'를 대상으로 새롭게 인물 읽기를 시도하였다.

서사의 기호적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원귀 서사는 여성이 원한을 갖게 되고, 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5240).

이 논문의 일부는 '국어국문학회, 제64회 전국학술대회(2020.9.26. 온라인 학술대회) 〈포스트휴머니즘 담론과 국어국문학의 미래〉'에서 "포스트휴먼 담론과 고전서사 문학 연구 방법"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것에서 수정보완하였음.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귀가 되어 원한을 푸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반부 서사에서 여성은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상태 주체에 머무는데, 이후 원귀가 되어 서사의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로 바뀐다. 서사의 세계에서 기호적 존재로서 주체의 행로는 ‘잠재화’ 양태에서 ‘현동화’ 양태를 거쳐 ‘실현화’ 양태로 이어지는데, 원귀는 인간에서 원귀로 변함에 따라 이 과정에 새로운 ‘가능화’ 양태의 단계를 마련한다. 원귀는 이제 주어진 세계 질서 속에서 제한되었던 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주체의 이런 변화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 존엄성이나 사랑의 실현과 같은 기본적인 욕망이 부정되는 현실 세계에 대한 분노의 표출에 근거한다. 정념의 주체로서 원귀는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와 무엇이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바로 이 점을 통해 원귀에 대한 새로운 읽기는 세계를 대변하고 그것의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에 대한 성찰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 담론, 고전서사, 인물, 원귀, 서사 주체, 행위 기호학, 정념 기호학

## 1. 새로운 담론의 출현과 고전문학 연구의 과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과 현실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종래의 인간에 대한 관념과 시각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종래의 휴먼이 아닌 새로운 휴먼, 근대의 표상이자 이 시기 정립된 휴머니즘에서 벗어난 새로운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를 넘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posthuman)’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철학적 입장에서는 21세기 들어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발전해 오던 기술들이 융합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까지 따로 발전해 오던 기술들이 융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기술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종래의 인간과 구별되는 새로운 인간이 주목 받게 된 것이다.<sup>1)</sup> 그러나 문학·예술의 영역에서는 20세기, 구체적으로 1960년대에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과 관련하여 기술 발전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의 출발로 여긴다. 이후에는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이 자주 사용하였고,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sup>2)</sup> 새롭게 제기된 문제적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좀 더 많은 함의가 필요하겠지만, 포스트휴먼은 일단, “인간 종을 더 이상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변화되어 이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sup>3)</sup>, “현재 인류의 생물학적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추어 현재 기준으로는 인간으로 분류될 수 없는 인간 이후의 존재”<sup>4)</sup>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관념, 인간에 대한 접근방식과 시각의 변화는 인간과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킨다. 철학, 사회학, 뇌과학, 매체학 등에서 선도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국문학을 포함한 문학 연구 영역에서 있어서도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논의되고 있는 담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인간’에 대한 연구를 본질로 삼고 있는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 연구 영역에서 이는 절실한 당면 과제이며 관련 논의를 더 심화·확산해야 할 것이다.

국문학이나 해외문학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지능형 기계에 대한 접근이나 전통적 인간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 
- 1)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아가넷, 2015, 14~15쪽.
  - 2) 천현순, 「포스트휴먼의 원형과 문학적 상상력-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vs. 호문쿨루스」, 『독일언어문학』 78,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7, 211~212쪽.
  - 3)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2015), 위의 책, 31쪽.
  - 4)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2015), 앞의 책, 100쪽.

존재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포스트휴먼에 해당하는 존재가 직접 등장하는 사이언스 픽션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sup>5)</sup> 영상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더욱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인간, 혹은 종래의 인간을 초월한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형상화해왔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포스트휴먼 담론을 수용하고 논점을 확산시켜 왔던 것이다.<sup>6)</sup>

문학 연구에서는 우선 텍스트에 형상화된 인물에 주목하여 그것이 갖는 포스트휴먼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그 인물과 관련된 맥락과 세계로 논의를 확장시켰다. 그런데 현대문학 연구와 달리 고전문학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의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기술의 진보를

- 
- 5) 송호림, 「포스트휴먼 진화-사이언스 픽션을 통해 본 인간과 인공 피조물과의 진화적 관계」, 『영어영문학21』 26권 3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3.; 노대원, 「한국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2000년대 이후 사이언스 픽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23, No. 2, 비교한국학회, 2015.; 조향, 「샤를로테 케르너의 소설 『결작 인간』에 나타난 신체와 정신의 문제 및 포스트휴먼적 상상력」, 『독일문학』 Vol. 60, No. 3, 한국독어독문학회, 2019.; 한승우, 「김영하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본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들」,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 6) 이수진, 「영화의 접속 지표와 포스트-휴머니즘 재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내포 연구」, 『기호학연구』 32, 한국기호학회, 2012.; 임현, 「트랜스문화론의 변주(II):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SF장르와 우주적 트랜스', 그리고 문화교육」, 『프랑스어문교육』 4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5.; 이정화, 「21세기 헐리우드 SF 영화에 반영된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 관계의 확장: Her (2013)를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Vol. 49, No. 1, 한국아메리카학회, 2017.; 서은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적'들의 재현: 스페인 영화와 괴물들」,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조민선·김유나, 「대안적 주제로서 포스트휴먼 캐릭터의 가능성 연구-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중심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연구』 56,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9.; 정락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영화적 성찰-2000년 이후 스티븐 스피버그의 SF 영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64,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바탕으로 하는 포스트휴먼 담론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전문학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sup>7)</sup>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담론은 현상에 대한 지시나 해석 뿐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이나 인간관에 대한 변화를 함축하고 견인한다. 따라서 새로운 담론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시각이나 접근 방법에 대한 모색은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이다.<sup>8)</sup>

새로운 담론은 ‘무엇’에 대한 발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와 중요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휴먼

7) 김종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에 한국고전문학교육의 방향을 숙고하였다. 한국 고전문학은 근대 이전의 세계를 기반으로 했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과학·기술과 그것의 영향에 관심이 높지 않았음을 밝히며 포스트휴먼 단계로 나아가는 과학·기술 주도 시대에 고전문학 연구와 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김종철, 「과학·기술 주도 시대의 고전문학교육」, 『문학교육학』 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육이나 연구의 화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포스트휴먼이 지향하는 생의 지속에 대한 본능적 욕망과 관련하여 사이보그는 장수(長壽), 재생(再生), 초인적 능력 획득 등을 다룬 고전문학과 관련짓기, 도구를 화제로 하여 기술, 장인 등을 다룬 고전문학에 대한 재해석 등을 제시하였다. 박지원의 〈담창애(答蒼崖)〉를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관련하여 분석하여 과학·기술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인문학적 쟁점을 고전문학교육에 끌어들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고전문학 작품의 새로운 해석을 타진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은 포스트휴먼 담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담론을 고전문학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다.

8) 고전문학 연구 영역에서도 최근 포스트휴먼 담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 방안이나 주제 탐색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어국문학회는 “포스트휴머니즘 담론과 국어국문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2020. 9. 26, 온라인학술대회) 여기에서는 기초강연 6편, 현대문학 8편, 고전문학 7편, 국어학 4편, 어문교육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일부는 포스트휴머니즘 담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포스트휴먼 혹은 새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국어국문학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고전문학 연구에서 포스트휴먼 담론과 관련된 최종 연구성과는 다음 2편이 최종 출간되었다.

신상필, 「고전적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신선·이인 서사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2020.; 강민경, 「포스트 휴먼 시대 동아시아 언어 서사의 스토리텔링 방향」,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2020.

니즘 담론 내지 관점을 고려한 고전문학 연구에서의 접근법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고전문학 연구에서 새로운 시대적 담론의 적용과 비판적 수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반성할 때 이 같은 접근은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관점에서의 접근법은 서사문학 연구에 있어서, 종래의 규범이나 관점에 고착된 현실 세계를 벗어나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대안 세계 구성 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유용한 시각이자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 2. 포스트휴먼의 관점과 고전서사 인물론의 방향

‘포스트휴먼의 관점으로 고전서사문학 연구하기’, 이러한 목표에는 접점을 찾기 어렵거나 다소 모순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이후의’, ‘새롭게 등장하는’을 의미하는 ‘post-’와 대립적인 ‘ante-’나 ‘pre-’를 의미하는 인간이 바로 고전서사에서 형상화한 인간 인물이기 때문이다. 용어만을 놓고 볼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과 담론으로, 과거에 존재하고(존재한 것으로 가정하고) 전통적 방식으로 형상화된 인간 인물에 관해 이해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현재 문학 연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점이나 대상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쉽게 드러난다. 새로운 시대나 환경 속에서 분열된 인간, 종래의 전통적 인간상에서 벗어난 인간, 한층 더 나아가 기계와 접속하거나 기계와 결합한 인간 등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접근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출현한 대상이 무엇이고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선으로 삼지 않고, 기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특정 시기에 유행하던 특정 관점으로 바라보고 분석·비평할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에 등장한 정신분석학으로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분석하고, 20세기에 등장한 구조주의 서사학으로 한국의 민담을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고전서사 텍스트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진 관점이나 방법론이 있다거나, 혹은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관점이나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포스트휴먼 담론의 성격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더 적절한 관점이나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포스트휴먼 담론은 워낙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논점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종래의 휴머니즘과 구별되는 지점에 그 출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문학 연구, 특히 문학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점이며,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을 중심으로 관계 맺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페페렐(Robert Pepperell)의 포스트휴먼의 세 가지 ‘조건’은 이러한 관점의 수정을 잘 표현한다. 첫째,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기존의 휴머니즘, 즉 남성 중심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둘째, 진화는 유전적인 것뿐 아니라 문화적·과학기술적인 것을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생명의 진화를 의미한다. 셋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 즉 환경, 동물, 인간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다.<sup>9)</sup> 압축적으로 표현된 페페렐의 새로운 인간 조건은 이념의 측면, 존재의 진화의 측면, 다른 것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새롭고 강렬한 변화를 역설하고 있다. 근대의 수립과 함께 완성된 남성 중심의 인간관에 대한 비판과 부정, 제약된 신체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열리는 외부세계의 새로운 설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조건들 중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술과 진화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반면 첫 번째와 세

9) 로버트 페페렐, 『포스트휴먼의 조건: 뇌를 넘어선 의식』, 이선주 역, 아카넷, 2017, 271~272쪽.

번째 조건은 상당히 유효한 시각을 제시한다. 이것들은 종래의 남성 중심의 휴머니즘은 억압과 착취의 불평등을 낳았고, 포스트휴먼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미를 강조한다.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 인간에 의한 동물 착취와 지구 자원 착취, 인간에 의한 인간 억압과 착취 등 다양한 관계에서 자행된 억압과 착취에 반하는 운동은 휴먼으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인간 중심적 세계에 대한 점진적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0)</sup>

포스트휴먼 담론의 이러한 인간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만 추동되고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미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가 전통적 휴머니즘과 인간 주체에 대해 비판적 해체를 시도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모색을 요청하였다. 푸코(Michel Foucault)를 비롯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종래의 휴머니즘에 반하는 ‘안티-휴머니즘’을 역설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 주체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의 주체가 아니다. 인간은 그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구축된 담론적 힘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 타자에 의해 생산된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로고스/남근/서구/인간중심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의 자유주의의 휴머니즘을 해체하는 것은 인간 주체의 범주 바깥으로 배제되었던 타자들에 대한 재성찰을 제기하였다. 이 타자들은 인간 중 안에서 배제되었던 젠더, 인종, 장애인뿐 아니라, 종 바깥에서 비인간으로 다

10) 포스트휴머니즘 담론 중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종래의 휴먼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특히 ‘서구/백인/이성애/남성’을 대변하는 인간 개념과 휴머니즘을 해체하는 페미니스트 사이보그 정치학이 대두된다.

이경란, 「포스트휴먼 시대의 포스트휴먼 담론들-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문학동네』 23(2), 문학동네, 2016, 12쪽.

이러한 입장은, 인간이 가진 육체에 새겨진 성, 인종, 계층 등의 모든 사회적 제약들을 버리고 새로운 기계 육신을 갖게 되면, 기존 질서가 가진 억압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이보그는 ‘포스트젠더 세계의 피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승우(2020), 위의 논문, 92쪽.



루어졌던 다른 생명체와 기계들까지 포함한다. 이 타자들과 ‘공존/공생/공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의 발명이 촉구되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하는 작업을 고전서사문학 연구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술과 진화의 산물이 아니더라도 종래의 전통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인간과 대비되는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사문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인간이 아닌 ‘비인간적 존재’를 고려할 수 있다. 문학 연구에서 이런 ‘비인간적 인물’을 통해 인간과 다른 대상 간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sup>12)</sup> 비인간적 인물들은, 인간이 다른 생물·사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근대적 믿음이 크게 도전받고 있는 지금, 포스트휴먼 생태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문학적 도구<sup>13)</sup>일 뿐 아니라 존재에 대한 사유와 인식에 대해 재고하는 데 유용한 지표<sup>14)</sup>가 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고전서사에 등장하는 비인간적 존재 중 귀신, 정확히 말해 ‘원귀(冤鬼)’에 주목한다. 원귀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제기되는 주체의

11)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106, 철학연구회, 2014, 216~217쪽.

12) James J. Paxon, *The Poetics of Personi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31. 최미경,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연구-마해송 동화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4,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19, 197쪽에서 재인용.

13) 최미경(2019), 위의 논문, 196쪽.

14) 고전문학 연구에서 비인간적 존재를 대상으로 한 포스트휴먼의 관점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 서사 텍스트 속 인물들을 관계 체계를 통해 새롭게 의미 부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유영중, 「포스트휴먼 시대에 다시 읽는 『피노키오의 모험』」, 『동화와번역』 30,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곽현희, 「〈호질〉에 나타난 탈(脫)인간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3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오세정, 「〈단금대 신립〉 설화의 여성주인공 연구-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본 설화 연구의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회, 2018.

정체성 문제, 즉 “자아의 경계, 신체의 경계, 나의 사고와 행위의 경계, 윤리적 책임의 경계, 자아정체성, 개인성의 문제, 자아 내부와 외부의 경계, 주관성과 객관성 및 내면성과 공공성의 경계와 탈경계 등의 문제”<sup>15)</sup>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대상으로 적절하다. 원귀에 대한 인물 분석의 방법은 특정 시대의 응집물로서 인물을 고정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서사의 주체로서 인물의 행위와 정념<sup>16)</sup>을 살피고 인물을 통해 서사 내 의미 체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3. 원귀 서사의 구조와 서사 주체로서의 인물 분석

#### 1) 원귀 서사의 구조

원귀 서사<sup>17)</sup>는 인간에서 귀신으로 화한 원귀가 ‘해원(解冤)’을 목표로 하여 행위하며, 그 과정과 결과가 서사의 중심 내용을 형성한다. <아랑전설>의 아랑이나 <장화홍련전>의 장화·홍련 등이 원귀 서사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아랑전설><sup>18)</sup>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xii쪽.

16) ‘구성되는 주체’라는 개념에 가장 적절한 문학 연구 방법으로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들 수 있다. 기호학은 기호라는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상을 기호로 파악하고 그 의미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 텍스트에서 형상화된 인물의 행위와 정념을 기호 체계에서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문학 텍스트의 인물, 즉 기호적 주체가 형성되는지, 그 성격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17) 고전문학 연구에서는 ‘원혼’ 서사, ‘원귀’ 서사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한다. 구분하자면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넋이 원혼(冤魂)이라면 원혼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현실 세계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는 존재를 원귀(冤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유석, 「원귀 서사에 나타나는 해원과 애도의 구조, 그 의미와 한계」, 『우리문학연구』 55, 2017, 106~107쪽.

아랑은 밀양부사의 딸이었는데 자색이 뛰어났다. 아랑을 사모하던 남성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유모를 매수하여 아랑을 유인하였다. 남자는 자신을 거부하는 아랑을 겁탈하고 살해하였다. 아랑을 찾지 못하고 밀양부사는 부임지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새로 온 밀양부사가 부임 첫날 밤에 죽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다. 아랑이 원귀가 되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 하였는데 놀란 부사들이 모두 죽은 것이다. 어느 날 한 용감한 신임 부사가 부임하였는데 아랑 귀신을 만나 그녀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신임 부사는 아랑의 지시에 따라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였고 아랑은 원한을 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핵심 사건별로 몇 개의 의미 단위를 설정하여 나눌 수 있다. 전체 서사에서 최초의 구성점(plot point)이 되는 사건은 바로 아랑의 억울한 죽음이 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아랑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원귀가 되어 이승에 머물게 된다. 이후 핵심 사건은 밀양으로 온 신임 부사가 부임 첫날 밤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신임 부사의 죽음의 원인은 다음 사건을 통해서 밝혀진다. 세 번째 핵심 사건은 한 용감한 부사의 등장과 아랑의 원귀와의 만남이다. 아랑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해원하기 위해서 신임 부사 앞에 출현한 것이다. 네 번째 핵심 사건은 범인의 체포와 처벌이다. 용감한 부사가 아랑의 지시에 따라 살인자를 체포함으로써 아랑은 해원한다. 이 네 가지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과 결부된 주요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아랑전설〉은 구전 설화뿐 아니라 시나 야담으로도 전한다. 이본에 따라 세부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이야기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아랑각〉 참조.

〈아랑전설〉에 대한 구술자료와 문헌자료의 서지 사항과 기본적인 연구는 아래 글 참조.

강진옥,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아랑형과 사그라진 신부원귀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유정월, 「문헌전승 〈아랑설화〉 연구: 서사구성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원인	핵심 사건	결과
남자가 아랑을 유인하여 겁탈함	① 아랑이 억울하게 죽음	아랑이 원귀가 됨
아랑이 부사를 만나러 옴	② 신입 밀양부사가 죽음	아랑의 해원이 지연됨
아랑이 부사를 만나러 옴	③ 용감한 부사와 아랑과 만남	아랑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짐
부사가 아랑의 지시에 따름	④ 살인자의 체포와 처벌	아랑이 해원함

‘여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원귀로의 변신’, ‘그 원귀로 인한 신입 부사의 죽음’, ‘원귀와 용감한 부사의 만남’, ‘부사에 의한 범인 처벌과 원한 해소’로 이루어진 연쇄 구조는 한국의 원귀 서사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었다. 수많은 원귀 설화뿐 아니라 조선 시대에 유행하였던 소설 〈장화홍련전〉<sup>19)</sup>에서도 이 같은 연쇄 구조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 ① 계모에 의해 장화와 홍련이 억울하게 죽음.
- ② 이후 철산에 신입 부사가 오면 모두 죽음.
- ③ 정동우가 철산 부사로 부임하여 장화와 홍련의 사연을 알게 됨.
- ④ 정동우가 계모를 체포하고 장화와 홍련을 신원함.

이러한 원귀 서사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죽음과 관련된 세계관을 살필 수 있다. 원한을 품고 죽은 인간은 원귀가 되어 인간 세계에 머물면서 해원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수많은 문학 텍스트에서 주요한 상상력으로 작용하여 서사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원귀 서사 중에는 원귀의 행위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도 있다. 경상남도 김해에

19) 〈장화홍련전〉은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모두 전하며 표기 문자도 한글본, 한문본, 국한문본으로 다양하다. 이본이 다양하지만 전체 서사의 내용은 유사하다. 이본에 따라서는 장화·홍련의 해원 이후 다시 배좌수의 딸로 환생한다는 내용이 첨가된 것도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장화홍련전〉 참조.

서 전승되는 설화 〈십 년 공부 나무아미타불〉<sup>20)</sup>를 보자.

어느 양반집에 혼사가 있었는데, 몸종이 새신랑에게 한눈에 반했다. 몸종이 새신랑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 신부인 척 하룻밤을 지냈다. 날이 밝자 몸종이 우물에 빠져 자살한 것과 자초지종이 밝혀졌다. 남자는 결혼이 무효라고 불평하고 본가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남자에게 죽은 몸종 귀신이 달려들었다. 100일간 곳을 헤서 겨우 귀신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귀신과 떼어놓기 위해 남자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 10년이 지나고 남자가 돌아오기 전날, 부모가 금기를 어기고 아들이 일본 간 사실을 발설하였다. 그러자 남자가 귀국하자마자 귀신에게 잡혀 가버렸다.

이 이야기는 이른바 ‘버림받은 여자 원귀 되어 보복하기’ 유형에 속하는 설화이다. ‘원귀 되어 소원 풀기’ 유형에 속하는 아랑의 서사에 비해 원귀의 훨씬 적극적인 해원 행위가 두드러진다.<sup>21)</sup> 아랑의 서사가 ‘소원 풀기’의 술어에서 나타나듯,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정당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이 서사는 ‘보복하기’의 술어에서 볼 수 있듯 주체의 직접적인 보복 행위가 핵심이다.<sup>22)</sup> 이 서사의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9권, 조은문화사, 2002, 201~204쪽.

21) ‘원귀 되어 소원 풀기’와 ‘버림받은 여자 원귀 되어 보복하기’ 유형별 서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개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478~492쪽.

22) 조현설은 ‘원귀 되어 소원 풀기’ 유형은 법적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관리가 하는 간접 해원의 방식, ‘버림받은 여자 원귀 되어 보복하기’ 유형은 법적 위반이 없는 사례로 직접 해원의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조현설, 「원귀의 해원 방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77~80쪽.

원인	핵심 사건	결과
몸종이 새신랑을 보고 반함	① 몸종이 새신랑과 동침함	결혼 취소
몸종이 새신랑과 결합할 수 없음	② 몸종이 자결함	몸종이 원귀가 됨
원귀가 남자에게 달라붙음	③ 남자의 도피 유학	원귀가 남자를 찾을 수 없음
남자의 부모가 금기를 위반함	④ 남자의 죽음	원귀가 남자를 데려감

주인공인 여성 인물은 사모하는 남성과의 결합을 욕망하고, 일시적으로 욕망을 성취한다. 하지만 남성과의 결합은 현실에서 지속될 수 없기에 스스로 우물에 빠져 자살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를 수 없는 욕망을 자살로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귀신이 되어서까지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한다. 아랑과 장화·홍련의 서사에서는 여성 인물의 죽음 자체가 억울한 것임에 반해 이 서사에서는 욕망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한 것이다. 그런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법칙이 무너진,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유형의 서사가 역사적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진지한 이야기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신립 장군의 전설 중, 신립에게 원한을 품은 귀신에 의해 신립이 패배하고 죽는 것으로 전하는 전설이 꽤 많다.<sup>23)</sup> 국운이 걸린 전투에서의 패배 원인을 욕망이 좌절된 원귀의 행위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비극의 전장인 탄금대가 있는 충주 지역에서 전하는 〈신립과 처녀〉<sup>24)</sup>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립이 사냥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 인가를 찾아 헤매던 중 산속에서 큰 집을

23) 임진왜란 당시 유명했던 신립에 관한 설화는 다수 전한다. 이 중에서 신립이 구원해 준 여성이 신립에게 원한을 품어 탄금대 전투에서 패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각편은 32편이 있다. 관련 논의는 아래 글 참조.

김정경, 「원혼 서사에 나타난 욕망과 이름의 문제-신립 설화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59, 한국구비문학학회, 2020.

24) 충청북도, 『전설지』, 1982, 82~85쪽.

발견하였다. 그 집에는 처녀 혼자 있었는데, 자신을 탐하는 종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하고 처녀는 종의 아내가 되거나 맞아 죽거나 할 상황이었다. 사연을 들은 신림이 종과 싸워 승리하고 그를 죽였다. 처녀는 신림에게 자신과 부부의 연을 맺자고 부탁하였다. 신림은 이미 결혼하여 부인이 있다며 거절하였는데, 다음날 처녀는 집에 불을 지르고 죽어 원귀가 되었다. 장인(권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후환을 막기 위해 파란 병을 주며 전란이 끝날 때까지 마개를 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신림이 왜적과 싸우기 위해 충주에 왔다. 혼란한 틈에 병마개가 열렸고 그러자 원혼이 나타나 신림으로 하여금 문경이 아닌 탄금대에 진을 치게 해서 패사하게 하였다.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된 전설이다. 서사의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인	핵심 사건	결과
종이 주인집 딸을 탐함	① 종이 처녀의 가족을 몰살함	처녀가 죽거나 종과 결혼할 처지
신림이 의분을 느끼고 돕기로 함	② 신림이 종과 싸워 물리침	종이 죽고 처녀는 구원됨
세상에 홀로 살아남은 처녀	③ 처녀가 신림과 결혼하고자 함	신림이 처녀의 청혼을 거부함
신림이 처녀의 청혼을 거부함	④ 처녀의 자살	처녀가 원귀가 됨
장인이 사건을 알게 됨	⑤ 장인의 방책 마련	(원귀의 해코지 없음)
임진왜란 발발, 금기 위반	⑥ 탄금대 전투에서 신림 패사	(처녀의 원혼이 풀림)

〈십 년 공부 나무아미타불〉과 〈신림과 처녀〉의 서사 패턴은 유사하다.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서사 단위를 보면, 〈십 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에서는 원귀가 되는 여성 인물이 새신랑을 욕망한 것이 첫 번째 핵심 사건이고 이것이 구성점이 되어 서사가 진행된다. 이에 반해 〈신림과 처녀〉는 여성 인물이 처한 위급한 상황이 소개되고 이를 남성 인물이 타개하는 사건이 먼저 제시되고 난 후 여성 인물이 자신을 구원한 남성 인물을

욕망하는 단계로 넘어간다.<sup>25)</sup> 첫눈에 반한 것과 은혜를 입고 난 후 결합을 원하는 것이 도입부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부의 이 차이를 제외하고 이후 이어지는 사건의 연쇄는 흡사하다. <신립과 처녀>의 핵심 사건 ①, ②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③~⑥은 <십 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의 ①~④와 동일한 서사 형태이다. 두 서사는 ‘여성이 남성과 결합을 욕망하지만 거절 당함’, ‘여성이 자결하여 원귀로 변함’, ‘원귀로부터 피할 방책 마련’, ‘금기 위반과 남성의 죽음(원귀의 해원)’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2) 행위와 정념의 주체로서 원귀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원귀가 되어 자신의 신원을 욕망하는 ‘소원 풀기’ 유형과 남성과 결합하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되지 않자 죽어 원귀가 되어 욕망을 실현하는 ‘보복하기’ 유형의 서사 구조를 살펴보았다. 두 서사 유형의 공통점은 서사의 주체가 인간에서 원귀로 변하는 것이고, 원귀가 되어 서사의 최종 과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인간에서 화한 원귀는 ‘인간 : 귀신(원귀)’이라는 대립적 의미 체계를 구성하며 서사 주체로서 독특하고 고유한 성격을 형성한다. 이 같은 원귀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본 논의에서는 텍스트 내 행위자로서 구체적인 발현 양상과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인물론은 인물을 시대의 반영물로서, 즉 어떤 가치나 의미를 지닌 명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입장은 제한된 의미 맥락을 설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을 차단하게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물 분석의 방향은 텍스트의 구성체인 인물에 대한 의미를 특정

25) 이 유형의 설화에서 이본에 따라 여성이 남성과의 결합을 욕망하는 원인은 다소 차이가 있다. 가족이 죽고 홀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하고 남성을 첫눈에 반해 상사병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에 대해 호감을 가진다는 점과 남성 인물과의 결합을 강렬히 욕망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시대의 산물로 제한하지 않고 의미의 가능성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데 있다.<sup>26)</sup> 그래야 그 가능성을 토대로 새로운 담론이나 관점으로 다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귀 서사를 중심인물인 원귀를 중심으로 서사를 크게 전반부 후반부의 에피소드로 정리하면 ① ‘여성이 원귀가 되다’와 ② ‘원귀가 원을 풀다’로 표현할 수 있다. 두 사건을 행위 기호학의 도식으로 표현하면<sup>27)</sup>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① 여성이 원귀가 되다

(남성이 여성을 죽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원한을 갖게 하다)

남성 → (여성 ∪ 생명) / 남성 → (여성 ∩ 원한)

‘여성이 원귀가 되다’는 곧 ‘여성이 억울하게 죽다’의 의미이다. 소원 풀기 유형의 서사에서는 원귀가 되는 여성 주인공이 타자에 의해 살해당한다. 따라서 여성의 생명이 박탈당한 것으로, ‘남성 → (여성 ∪ 생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보복하기 유형에서는 여성이 자살하는데, 이는 ‘여성 → (여성 ∪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이 자살하는 이유가 남성의 거절로 인한 것으로, 즉 ‘남성이 여성을 자살하게 하다’가 성립된다. 따라서 ‘남성 → [여성 → (여성 ∪ 생명)]’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귀 서사는 모두 남성이 여성의 생명을 앗아가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상을 달리 표현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원한을 갖게 하다’로, ‘남성 → (여성 ∩

26) 서사론에서 인물 연구의 관점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글 참조.

오세정(2018), 위의 논문, 150~151쪽.

27) 사건은 행위로 구체화되는데, 행위는 행위 주체(S1)와 그 영향을 받는 상대 주체(S2), 그리고 대상(O)로 이루어진다. 서사에서 행위는 어떤 상태의 변형을 나타내는데 이를 ‘→’로 표시하고, 주체와 대상이 연결하면 ‘∩’, 이접하면 ‘∪’로 표시한다. 결국 서사 내 각종 양상은 ‘행위주체 → (상태주체 ∩ 혹은 ∪ 대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350~358쪽.

원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에서 서사의 실제 행위 주체는 남성이며 여성은 그 남성에 의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상태 주체에 머물고 있다.

② 원귀가 원을 풀다

(원귀가 남성을 죽이다/ 원귀가 스스로 원한을 풀다)

원귀 → (남성 U 생명) / 원귀 → (원귀 U 원한)

보복하기 유형의 서사에서는 원귀가 직접 자신을 거부한 남성들을 죽게 한다. 따라서 '원귀 → (남성 U 생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반면에 소원 풀기 유형에서는 부사가 범인을 처벌하므로 '부사 → (범인 U 생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사가 범인을 처벌하게끔 하는 존재가 바로 원귀이므로 '원귀 → [부사 → (남성 U 생명)]'으로 수정할 수 있다. 두 유형에서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결국 원귀가 남성을 죽게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성립된다. 이는 달리 말해 '원귀가 행위하여 자신의 원한을 없애다', 즉 '원귀 → (원귀 U 원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을 생명으로 설정하든 원한으로 설정하든 ②에서 서사의 행위 주체는 여성에서 화한 원귀이다.

이처럼 서사 구조에서 대상에 대한 주체의 서사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계약', '역량', '수행', '승인'이라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 서사 도식에 따라 전개된다. 그레마스(Algirdas Greimans)에 따르면 서사 일반 구조에서 '계약'은 주체에게 어떤 일을 하게끔 하는 것, '역량'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능력, '수행'은 주체가 그 일을 하는 것, '승인'은 주체가 수행한 일에 대한 평가이다.<sup>28)</sup> 이 도식에서 '역량'은 주체가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태들로 구성되는데, /의지(원하다)/, /의무(해야 하

28)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 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목적 상태에서 심적 상태로』,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역, 강, 2014, 19~20쪽.

다)/, /능력(할 수 있다)/, /지식(알다)/ 네 가지가 있다. 서사의 주체는 ‘잠재화(virtualisation)’ 단계에서 ‘현동화(현실화)(actualisation)’ 단계를 거쳐 무언가를 수행해서 완수하는 ‘실현화(réalisation)’ 단계에 이른다.<sup>29)</sup> 역량 중 ‘의지’와 ‘의무’는 잠재화된 주체, ‘능력’과 ‘지식’은 현동화된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사에서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결국 주체의 역량에 따른 수행인데, 이 역량이 바로 주체의 ‘성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원귀 서사에서 주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에 이르는 주체의 행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자.

### (1) 잠재화

원귀가 된 인물들의 애초 모습에서 그들의 의지나 의무의 양태는 서사에서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추론해야 하기도 한다. 주체가 남성과의 결합을 욕망하는 복수하기 유형의 서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결합하기를 원함/, /결합하여야 함/’을 찾을 수 있다. 소원 풀기 유형의 서사에서 여성 인물들이 죽기 전에 무엇을 욕망하는지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조를 의심받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유기된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이 부정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된 것이다. 이는 곧 ‘여성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기를 원함/, /존중받아야 함/’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현동화

소원 풀기 유형에서 여성 주체가 수행해야 할 것은 자신을 죽인 범인을 잡아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주체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성이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남성의 폭력에

29) 홍정표, 『정념 기호학-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31~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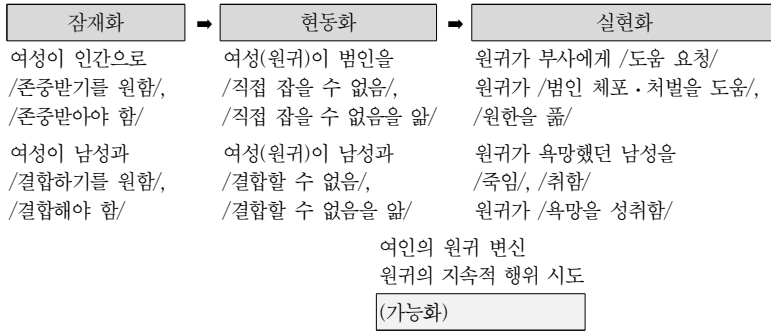
대항하지만 역부족이었으며, 원귀가 되어서도 신임 부사들이 계속 죽음으로써 범인의 체포와 처벌에 대한 요구는 계속 지연된다. 이는 ‘여성(원귀)이 /범인을 직접 잡을 수 없음/, /범인을 직접 잡을 수 없음을 앎/’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보복하기 유형에서는 주체인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남성과 결합할 수 없기에 자살한다. 원귀가 되어서도 남성의 원조자들이 쓴 방책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남성과 결합하기는 지연된다. 이는 ‘여성(원귀)이 남성과 /결합할 수 없음/, /결합할 수 없음을 앎/’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 소원 풀기 유형의 서사에서 주체인 여성은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을 살해한 범인을 직접 잡을 수 없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복하기 유형의 서사에서 주체인 여성은 남성과 결합을 원하고, 그래야 한다고 여기지만 현실에서 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원귀가 되어서도 여전히 지속된다. 따라서 서사도식에 따르면 실현화의 단계에서는 ‘여성(원귀)이 /범인을 잡지 못함/, /인간 존엄성 훼손을 보상받지 못함/, ‘여성(원귀)이 /남성과 결합하지 못함/, /욕망을 성취하지 못함/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원귀 서사에서 중국에는 주체가 욕망했던 과업을 수행한다.

### (3) 실현화

소원 풀기 유형에서는 주체가 귀신을 보고도 죽지 않는 용감한 부사를 만나 범인을 잡고 자신들의 원을 푼다. 복수하기 유형에서는 주체가 결합을 욕망했던 남성을 결국 죽게 만든다. 이는 달리 말해 죽여서 남성을 차지하는 것이다. 각각 ‘원귀가 부사를 시켜 혹은 도와 /범인을 잡음, 처벌함/, /원한을 풀/, ‘원귀가 /남성을 죽게 함/, /욕망을 성취함/’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귀 서사의 주체 행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가능화

현동화에서 실현화로 넘어가는 데 있어 서사에서 논리적 비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서사의 핵심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이전의 ‘인간’ 여성이 아니라 ‘원귀’라는 점이다. 인간 주체로서 가질 수 없던 ‘역량’을 원귀 주체가 됨으로써 갖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서사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양태가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원귀가 되어서도 처음에는 목표한 수행을 이루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결국 원귀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한다. 이는 서사 도식에서 포착되지 않지만 주체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단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실제 그레마스(Greimas)와 폰타뉴(Fontanille)는 행위 기호학의 영역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기호학적 존재 방식으로 ‘가능화(potentialisation)’를 설정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주체의 ‘정념’이 작동한다<sup>30)</sup>는 점이 흥미롭다.

원귀 서사의 문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간과 원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sup>31)</sup> 인간과 귀신은 다른 존재이며

30) 그레마스, 폰타뉴(2014), 위의 책, 201~208쪽.  
31) 아랑이나 장화·홍련의 원귀가 신임 부사에게 나타나자 부사들이 모두 죽는다. 이는 정상적인, 일상적인 세계에서 인간과 귀신이 접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림의 서사에서도 귀신이 특정 인물에게는 인식될 때가 있으나 일반인에게는 직접 눈에 띄지 않는다.

각각은 다른 세계에 속한다고 규정된 것이며, 그것은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한다. 그런데 온전히 죽지 못해 혹은 삶의 세계에 미련이 남아 삶과 죽음의 세계 그 경계에 선 인물이 원귀이다. 부정되고 훼손된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죽을 수 없는 것이다. 삶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남성과의 결합을 욕망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죽어서까지, 죽어서까지 그 욕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sup>32)</sup> 원귀는 기대 혹은 원함이 좌절되어 분노의 정념에 휩싸인 존재이며, 그 분노는 결국 해원, 다른 말로 복수를 가능하게 한다. 정념에 사로잡힌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역량이 아니라 '주관적 믿음' 때문이다.<sup>33)</sup> 죽음을 불사한, 죽음을 초월한 정념의 주체가 행동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잠재화되고 현실화된 역량을 모두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32) 김정경은 신립 설화와 원귀의 관계를 애정에 방점을 두지 않고 홀로 남은 처녀가 남성으로 대표되는 상징계에 편입되기를 욕망한다고 보았다. 서사의 정황상 여인이 남성에게 우호적이라는 점, 결합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애정의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인이 신립이라는 남성을 욕망하게 되는 계기가 사랑이 직접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경우는 이 같은 해석은 충분히 타당하다.

김정경(2020), 위의 논문, 59쪽.

신립 설화에서 원귀가 되는 여성을 통해, 이름 없이 존재하는 여인이 이름을 갖고자 하는 욕망, 즉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존재가 공동체에 속하기를 욕망하는 것으로 읽는다면, 이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갖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33) 예컨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추구하는 대상을 획득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왜곡된 상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기도 한다.

송태미,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 『기호학 연구』 65, 한국기호학회, 2020, 50~51쪽.

이처럼 정념에 사로잡힌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량은 의지, 의무, 지식, 능력이 아닌 주관적 믿음인 것이다. 그레마스도 가능화된 주체가 '믿음'의 문체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후 폰타뉴(Fontanille)와 질베르베르그(Zilberberg)는 이를 심화시켜 가능화에 해당하는 양태를 /믿음/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운다.

그레마스, 폰타뉴(2014), 위의 책, 99쪽.; 홍정표(2014), 위의 논문, 131쪽.

주체는 이 같은 정념으로 인해 종래의 법칙이나 가치 체계로부터 속박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한다.<sup>34)</sup>

원귀 서사의 유형에 따라 행위의 직접성이나 적극성은 차이가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에서 기인한 원한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원귀 서사는 지향점은 같다. 이들 서사의 세계는 원귀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다. 서사 주체인 원귀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삶도 죽음도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서 ‘존재의 연장’이다. 이는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 의미 체계에 대하여 ‘비(非)죽음’과 ‘비(非)삶’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이 현실 세계에서 인간 존재의 영역이라면, 이 비죽음과 비삶은 원귀의 존재 영역이다. 원귀는 해원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비삶의 상태에서 결국 욕망을 성취한 비죽음의 상태로 이동한다. 기존의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는 비죽음과 비삶의 존재 영역을 표상하는 원귀는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 세계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원귀의 정념에서 비롯된 강렬한 ‘믿음’과 그로부터 수행되는 행위는 해원하기 전까지 온전히 죽을 수 없다는 것, 혹은 욕망 성취를 해야지 비로소 삶 이후의 죽음의 세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훼손당한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라는 소극적·부정적 욕망이든, 성취할 수 없는 대상을 욕망하는 적극적·긍정적 욕망이든, 존재를 연장한 원귀들은 인간성 실현을 위해 현실의 제약과 굴레를 드러내고 그것을 탈피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 4. 비인간적 존재 원귀를 통한 인간의 이해

34) 정념 주체가 그의 주관적 믿음에 따라 움직일 때 이러한 주체의 움직임이 의미생성행정의 심층에서는 고정된 가치 체계를 재조종하도록 유도한다. 송태미(2020), 위의 논문, 51쪽.

포스트휴먼 담론의 등장으로 인문학을 비롯한 학문 전 영역에서 종래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다시 보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 기술과 진화의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인간과 인간을 중심으로 맺고 있는 관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성찰은 주요한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논의는 포스트휴먼 관점을 고려한 고전서사 인물론 연구를 위해, 인간 존재와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가지면서 동시에 존재의 경제적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비인간적 존재인 ‘원귀(冤鬼)’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원귀에 대한 분석 방법은 인물을 고정된 실체로 간주하거나 제한적 의미 맥락을 설정하지 않고 구조적 지위를 가진 의미론의 단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물을 텍스트 내에서 기호적으로 구성되는 주체로 설정하여 서사 주체의 행위와 정념에 집중하였다.

원귀 서사의 주인공인 원귀는 타인의 행위에 조종되고 영향받는 상태 주체에서 원귀가 된 이후 최종 가치를 탐색하고 획득하는 행위 주체로 변모한다. 서사 세계에서 기호적 존재로서 주체의 행로는 잠재화, 현동화, 실현화로 이어지는데, 원귀 서사의 주체는 주어진 역량에 따른 수행으로 이어지는 행로를 따르지 않는다. 현실의 주어진 역량이나 지배받는 법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양태의 존재 방식이 설정되는데 이를 가능화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와 욕망의 좌절을 통해 분노에 휩싸여 복수의 행로로 진입한 정념의 주체인 원귀는 현실 세계의 제약된 행위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시키고 수행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성 훼손의 극단적 상황, 세계의 논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분출된 정념이 서사 세계에서 새로운 논리나 질서의 기능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부정된, 현실의 세계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다시 말해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의 역설적 역습은 인간과 관련된 각종 관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원귀들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이 여성들은 서사 세계 내에서도 철저히 약자이며 현실의 세계 법칙에 순종하게끔 강요당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과 대립 체계에 있는 것은 그 세계의 정상, 중심, 주류로서의 인간, 즉 남성이며 그들에 의해 구축된 강고한 세계 질서이다. 원귀 서사의 여성 인물들의 죽음과 원귀로서의 존재 연장은 남성 중심의 지배질서, 기존의 가치 체계를 강고히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의 가장 주변부에 존재하는 은폐된 희생자의 실상을 드러낸다. 또한 원귀는 서사로 재현된 세계의 법칙 속에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세계 법칙을 균열 내며, 죽음과 삶의 세계를 분리하면서 재통합시키는 역설적 역량을 발휘한다. 이는 서사가 반영한 현실 세계의 법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귀를 통해 드러나는 정념의 행로는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 결핍되고 무엇이 보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그 세계를 대변하고 그것의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원귀 서사의 원귀에 대한 정념의 주체로서 기호학적 독해를 통해 이러한 역설적이고 첨가적인 독서가 구체화되고 풍부해진다.

## 참고문헌

- 강민경, 「포스트 휴먼 시대 동아시아 언어 서사의 스토리텔링 방향」,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2020, 5~34쪽.
- 강진욱,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아랑형과 사그라진 신부원 귀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1~45쪽.
- 곽현희, 「〈호질〉에 나타난 탈(脫)인간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3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110~139쪽.
-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1~515쪽.
-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 106, 철학연구회, 2014, 215~242쪽.
- 김정경, 「원혼 서사에 나타난 욕망과 이름의 문제-신립 설화를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59, 한국구비문학회, 2020, 37~64쪽.
- 김종철, 「과학·기술 주도 시대의 고전문학교육」, 『문학교육학』 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9~29쪽.
- 노대원, 「한국 문학의 포스트휴먼적 상상력-2000년대 이후 사이언스 픽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23, No. 2, 비교한국학회, 2015, 333~360쪽.
- 로버트 페페렐, 『포스트휴먼의 조건: 뇌를 넘어선 의식』, 이선주 역, 아카넷, 2017, 1~316쪽.
- 마정미, 『포스트휴먼과 탈근대적 주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1~112쪽.
- 서유석, 「원귀 서사에 나타나는 해원과 애도의 구조, 그 의미와 한계」, 『우리문학연구』 55, 2017, 105~133쪽.
- 서은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주적’들의 재현: 스페인 영화와 괴물들」, 『비교문화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53~75쪽.
- 송태미, 「가능화된 주체’의 기호학적 위치」, 『기호학 연구』 65, 한국기호학회, 2020, 49~70쪽.
- 송호림, 「포스트휴먼 진화-사이언스 픽션을 통해 본 인간과 인공 피조물과의 진화적 관계」, 『영어영문학21』 26권 3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3, 53~74쪽.
- 신상필, 「고전적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신선·이인 서사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2020, 35~58쪽.

- 알지르다스 J. 그레마스, 자크 폰타뉴, 『정념의 기호학-목적 상태에서 심적 상태로』, 유기환, 최용호, 신정아 역, 강, 2014, 1~443쪽.
- 오세정, 「〈탄금대 신립〉 설화의 여성주인공 연구-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본 설화 연구의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5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8, 141~168쪽.
- 유영중, 「포스트휴먼 시대에 다시 읽는 『피노키오의 모험』」, 『동화와번역』 30,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5, 195~214쪽.
- 유정월, 「문헌전승 〈아랑설화〉 연구: 서사구성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71~101쪽.
- 이경란, 「포스트휴먼 시대의 포스트휴먼 담론들-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문학동네』 23(2), 문학동네, 2016, 1~17쪽.
- 이수진, 「영화의 접속 기표와 포스트-휴머니즘 재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내포 연구」, 『기호학연구』 32, 한국기호학회, 2012, 197~219쪽.
-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1~717쪽.
- 이정화, 「21세기 헐리우드 SF 영화에 반영된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 관계의 확장: Her(2013)를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Vol. 49, No. 1, 한국아메리카학회, 2017, 125~145쪽.
- 임헌, 「트랜스문화론의 변주(II):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 SF장르와 우주적 트랜스', 그리고 문화교육」, 『프랑스어문교육』 4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5, 285~338쪽.
- 정락길, 「포스트 휴먼에 대한 영화적 성찰-2000년 이후 스티븐 스피버그의 SF 영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64,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179~205쪽.
- 조민선·김유나, 「대안적 주체로서 포스트휴먼 캐릭터의 가능성 연구-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56,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9, 395~428쪽.
- 조향, 「샤를로테 케르너의 소설 『결작 인간』에 나타난 신체와 정신의 문제 및 포스트휴먼적 상상력」, 『독일문학』 Vol. 60, No. 3, 한국독어독문학회, 2019, 211~235쪽.
- 조현설, 「원귀의 해원 방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65~96쪽.
- 천현순, 「포스트휴먼의 원형과 문학적 상상력-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vs. 호문쿨루스」, 『독일언어문학』 78, 한국독일언어문학학회, 2017, 209~235

쪽.

최미경,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연구-마해송 동화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4,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2019, 167~202쪽.

충청북도, 『전설지』, 1982, 1~670쪽.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아카넷, 2015, 1~357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9, 조은문화사, 2002, 1~1225쪽.

한승우, 「김영하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본 과학 기술 시대의 타자들」, 『이화어문논집』 51, 이화어문학회, 2020, 90~112쪽.

홍정표, 『정념 기호학-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희로애락』,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1~327쪽.

James J. Paxon, *The Poetics of Personi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1~210.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ABSTRACT

A Study on Post-Human Discourse and  
Character Theory of Classical Narrative:  
The Vengeful Ghost as Narrative Subject

Oh, Se-jeong

With the advent of post-human discourse, a review of human beings from a new perspective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point of view has been activated in all fields of study, including the humanities. The new discourse implies and drives not only indic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phenomena but also changes in the existing view of human beings or the world. Therefore, the search for a new perspective or approach based on a new discourse remains a valid problem in research on classical literature. In this paper, I made a new attempt to study the characters of the "Vengeful Ghosts" (冤鬼) that often appear in classical narratives. Although the vengeful ghost is an inhuman being, it reveals the value and character of human existence.

The vengeful-ghost narrative is structured in such a way that a woman harbors resentment, and a ghost (transformed from a woman) resolves the resent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narrative, the woman does not become a subject of doing but remains a subject of being, and then becomes a vengeful ghost and a subject of doing, thereby completing the task of the narrative. In the world of narrative, the path of the subject as a semiotic existence leads from the "virtual" mode to the "actual" mode and then to the "real" mode. In the process of a vengeful ghost narrative, as the character changes from a female human to a vengeful ghost, we can identify a new stage, the "potential" mode. The vengeful ghost has now become a subject who realizes new possibilities and carries out tasks, breaking out of the limited scope of action in the given world order. This change in the subject is based on the expression of anger against the

real world, which denies basic desires, such as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love, that should be respected in human beings. As the subject of passion, the vengeful ghost shows what is lacking in the real world and what needs to be supplemented. Through this perspective, a new reading of the vengeful ghost is a request to reflect on the human being who represents the world and gives it its order.

**Key Words** Post-human, post-human discourse, classical narrative, character, vengeful ghost, narrative subject, semiotics of action, semiotics of the passion

논	문	투	고	일	:
				2022.01.25.	
심	사	완	료	일	:
				2022.02.09.	
계	제	확	정	일	:
				2022.02.16.	